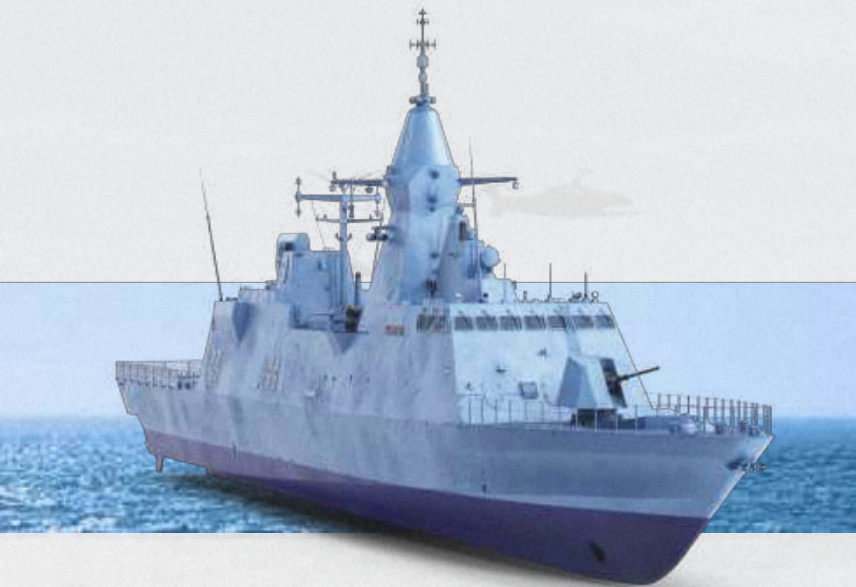


INVESTMENT GUIDEBOOK

NH-Amundi자산운용

유럽방산 투자 가이드북

2025. July



■ 왜 지금 이 시점 유럽방위산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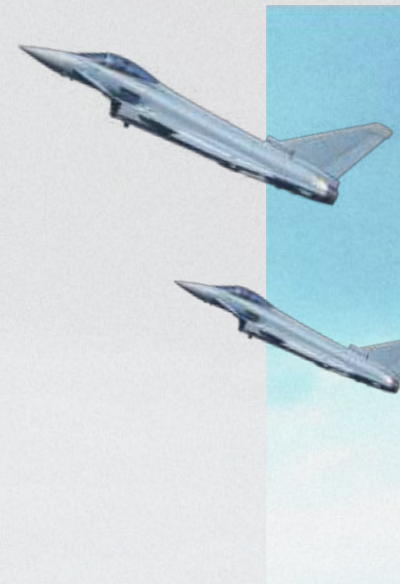
NATO의 귀환 - 신냉전의 돌입과 유럽의 재무장
유럽의 홀로서기 - 유럽 우선주의 최선호 업종

■ M7이후의 기술성장주 - 유럽방위산업

플랫폼 시대의 강자들
유럽이 꿈꾸는 차세대 프로젝트

■ HANARO 유럽방산 ETF 소개

유럽의 재무장 (ReArm Europe)
방위산업 지출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방산기업





왜 지금 유럽방산인가?

신냉전의 돌입과 유럽의 재무장

왜 오늘날 유럽방산에 주목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했으며, NATO의 가치에 회의적인 트럼프 2기행정부의 출범은 **'시대적 전환(Zeitenwende)'으로 일컬어지는 국방 정책 및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유럽의 국방비 감축 및 현상 유지 기조는 종결되었으며, 유럽 각국은 자국 및 집단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국방 예산 증액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NATO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여전히 그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 즉 국방을 위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과거 몇 년간의 막대한 금액을 빚지고 있어요. 이는 미국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05.),
NATO 정상회의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하한 2%는 시작일 뿐 충분하지 않아요. 3%도, 4%도 마찬가지입니다. 5%는 되어야 해요... 강력한 군사력(hard power)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 우선, 우리 국민, 우리 납세자, 우리 국경,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우선시할 겁니다.”

- 피트 헤그세스 현 국방장관 (2024.02.)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계속해서 상당히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2%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만 2028년부터 추가로 30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2025.02.)
원헨 안보회의 중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 많이 무장하고, 우리의 방어 태세를 높여야 하며, 이는 평화 자체를 위해, 역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회원국들은 재정 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군사 지출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유럽 땅에서 탄약, 전차, 무기, 가장 혁신적인 장비들을 구매하고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 (2025.03.) 대국민담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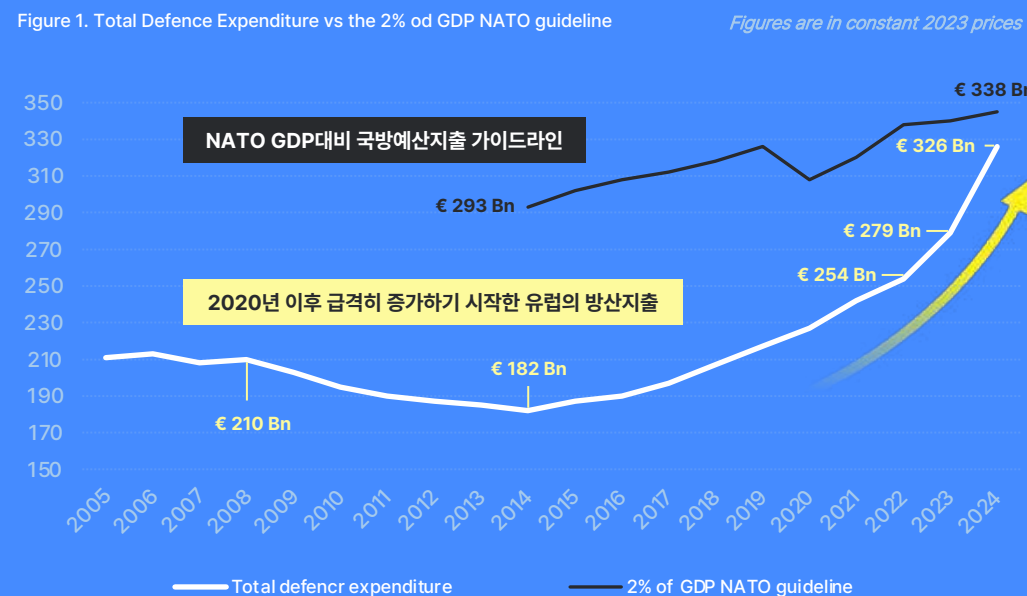
유럽의 군비증가와 재무장은 노쇠한 유럽 구조개혁의 신호탄이자 새로운 투자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유럽의 국방비 증가는 세계적인 군비 지출 증가 추세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럽 연합(EU27)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2023년 2,790억 유로(GDP의 1.6%)에서 2024년에는 3,260억 유로(GDP의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NATO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EU 전체 국방비 증가율이 19.7%에 불과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증가의 **핵심 동력은 노후 장비 현대화 및 재고 확충 수요입니다.** NATO의 20% 장비 투자 목표 달성 국가 급증과 EU의 기록적인 투자 지출은 방위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장비 지원이 이러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체들에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NATO 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 (2005 - 2024E)

Source :European Defense Agency (2024)



Opportunity in Change

NATO Investment Momentum

유럽의 홀로서기와 유럽우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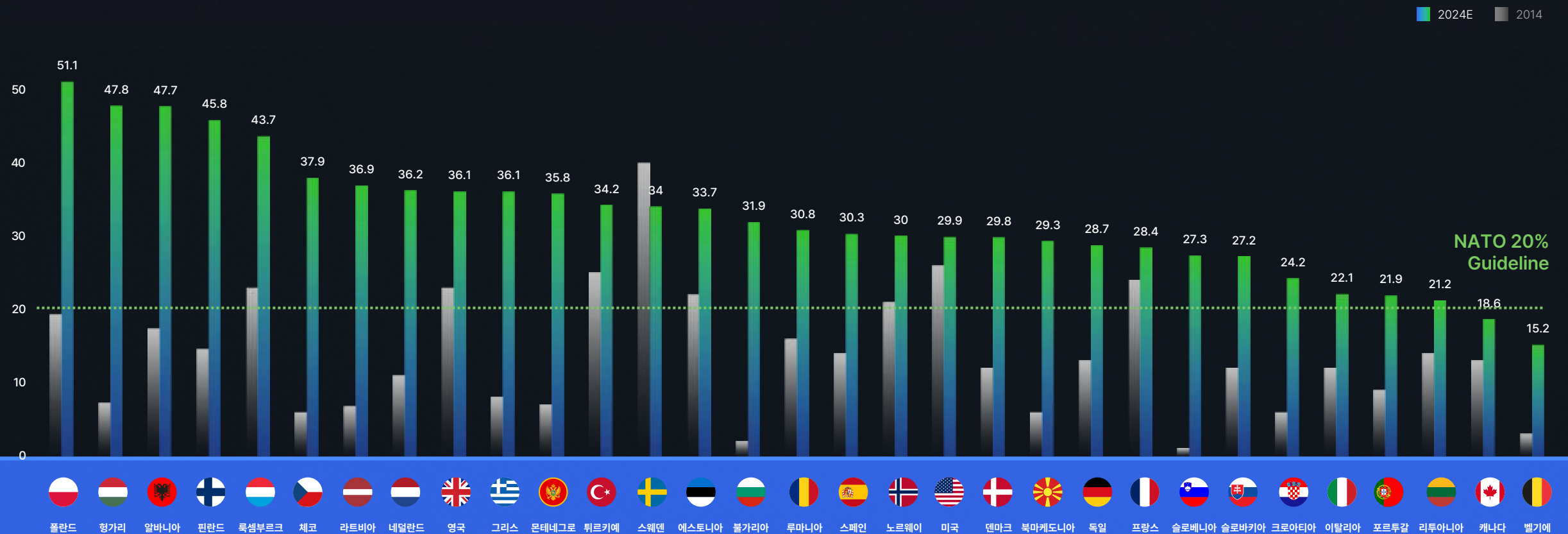
- 유럽 방산기업의 기회

홀로서기에 나선 유럽

출발선상에 있는 NATO의 국방예산지출 확대

NATO 가입국가 별 국방예산 대비 국방장비 지출 현황 (2014 vs. 2024E)

Source :NATO (2025)



미래 미국 행정부의 NATO 및 유럽 안보에 대한 공약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유럽 국가들의 자체 방위력 강화 및 방위 산업 자립 노력을 더욱 가속화** 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동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부담 수준에 따라 미국의 집단 방위 공약(NATO 조약 5조)을 조건부로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GDP 대비 3% 또는 5%와 같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국방비 지출 목표를 요구하며,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작금의 안보위기가 유럽 국가들에게 큰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체적인 방위 역량 확보의 시급성을 부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모토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보 및 국방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하나된 유럽, 노후장비의 통합현대화
흐름으로 인해 유럽 권역내 방산기업에
수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에는 미국의 불확실성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즉시적 대응 외에도 **EU 통합의 가속화, 유럽 권역내 산업 주권 확보와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공존합니다. 노후화된 유럽산 장비와 러시아산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NATO 국가들을 중심으로 **NATO 표준장비로의 전환을 통한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장기적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유럽 권역 내 방위산업체가 그 수혜 대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같은 일선 국가의 경우 K2흑표전차와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당장의 방위력 보강에 힘써왔지만**, 효율적인 공급망 유지와 권역내 산업주권 확보,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유럽산 구매(Buy European)’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권역 내 방산기업들은 이러한 수혜의 대상으로 **높은 매출성장**과 **장기 이익**가시성 개선이라는 펀더멘털 측면 개선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Buy European” - 하나된 유럽, 노후장비의 통합 현대화의 직접적 수혜

Leonardo 수주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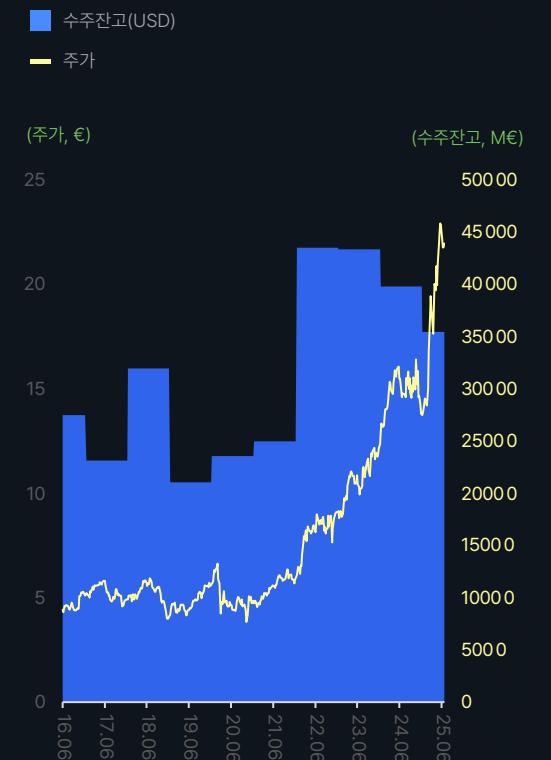
Rheinmetall AG 수주잔고



BAE Systems 수주잔고



Thales SA 수주잔고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

대공방어/미사일 전력

중기갑 전력 현대화와 상시배치, 원거리 정밀 타격 화력 플랫폼의 확보와 대규모 장기 고강도 전면전을 위한 동원능력 확대를 추구합니다.

- 다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무인방어시스템

THALES LEONARDO

지상 전력

드론-순항-탄도에 이르는 다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무인방어시스템 도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중기갑전력 현대화
- 원거리 정밀 타격 화력 플랫폼
- 동원능력 확대

RHEINMETALL LEONARDO SAAB

항공 전력

6세대 차세대 전투기와 유무인복합체계 기반 공중우세 확보, 적지/장거리 정밀타격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6세대 전투기, 유무인복합체계
- 적지/장거리 정밀타격 전력

DASSAULT AVIATION AIRBUS MTU SAFRAN

해상 전력

발틱, 북해, 지중해 등 다중전장 동시 대응을 위한 해군함정 현대화 및 대형 전함 플랫폼 확보, 무인화 함정을 통한 전투효율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해군함정 현대화
- 대형 전함 플랫폼 도입
- 무인화 함정

SAAB Rolls-Royce BAE SYSTEMS

네트워크/하이브리드전

전장 데이터 레이어 구축을 통한 택티컬 클라우드 전투체계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및 하이브리드 방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전장 택티컬클라우드
- AI분석대응
- 사이버보안

SAAB HENSOLDT INVISIO

배경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성장이 희소한 시대, 구조적 성장주

Magnificent 7 의 대안, 새로운 기술주

유럽방산주는 전통적인 플랫폼 강자에서
최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기술성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유럽은 전투기와 전차, 함정 등 전통적인 플랫폼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경험과 수출실적을 토대로 우수성을 널리 선보인 PHZ2000 자주포와 레오파르트2 전차, 유로파이터 파이푼과 라팔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 극초음속미사일, 첨단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 NATO 및 각국 정부는 AI, 사이버 보안, 우주항공,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컴퓨팅, 신소재, 무인시스템 등을 핵심적인 미래 국방 기술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는 정보 분석과 무인시스템 운용, 사이버전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은 방산 분야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우주 기반 통신 및 감시정찰(ISR) 자산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요격수단이 없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역시 주요 R&D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유럽의 방산 스타트업들이 부상하며 벤처 캐피탈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유럽은 "ReArm Europe, Readiness 2030" 프로젝트를 통해 EU차원의 대출 1500억 유로, 재정 준칙 유연화를 통한 최대 8000억 유로를 지원하여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고 공동조달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구하며 유럽방위기술 및 산업기반 확충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환으로 약 8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방위기금(EDF) 설립을 통해 회원국 간 공동 R&D 및 방산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중 R&D 예산이 27억 유로, 생산설비확충 및 역량개선을 위한 예산이 53억 유로로 그 초기 비용만 원화 12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R&D비용과 민간투자 분야의 활력도 면에서 미국에 열세이지만 유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다국적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산악감에 따른 우려에 노출된 북미 방산기업과 달리, 유럽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유럽 기업의 자주국방을 위한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ANARO ETF는 유럽ETF 리더인 Amundi 자산운용과 함께
오늘의 플랫폼 강자이자 내일의 기술성장주가 될
핵심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FCAS, SCAF (6세대전투기 사업)



오직 유럽의 힘으로, 스텔스 그 이상을 넘어

NATO 주력전투기인 유로파이터파이푼과 라팔의 퇴역, 러시아와 중국의 차세대전투기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첨단소재에서부터 엔진,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풀스택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 첨단 방위산업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Dassault Aviation과 Safran, MTU Engine, Thales와 HENSOLDT 등이 주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은 무인화와 우주 기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장 환경과 통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urodrone, MALE RPAS (유로드론)



차세대 전장환경,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리비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24시간 정밀 타격 드론의 필요성에서 출발, 외산 드론이 아닌 유럽산 드론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rodrone은 '유럽 최초의 완전 독자 전투 드론'으로, 2030 시대 NATO 지상-공중 네트워크의 핵심 센서이자슈터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HENSOLDT와 Thales, Safran, Saab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UROGUARD (해군 무인체계)

다시 꿈꾸는 21세기 대항해 시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발틱 연안에서 드론·기뢰·초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작된 저비용·무인·모듈형 해상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 이후 각국 해군은 '인명·예산 부담 없이 전장을 채우는 새로운 무인자율 함대'를 대량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공동 생태계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LEONARDO와 Thales, Kongsberg등이 주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DIN's EYE II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경보)

지구를 넘어 우주로

우크라이나 침공,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대위성무기발사(ASAT)를 발사 즉시 탐지하고 추적할 독자적 방어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ODIN's EYEII는 우주센서층을 기반으로 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북대서양-러 극동-중동지역 24시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RBUS와 HENSOLDT, Thales등이 주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HANARO's Top Pick

주목해야 할 유럽 주요 방산기업



강철의 방패,
유럽 기갑의 심장

- 레오파르트2 전차 주포, 푸마/링스 장갑차, 스카이넥스 방공체계 등 지상전력 기술의 독보적 강자
- 독일군 중심으로 NATO 채택 표준 무기체계 다수 보유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 포병, 기갑 수요 폭증 수혜 기업으로 급부상

티커	RHM GR Equity
거래소	Xetra
주요 제품	차세대 전투차량 장거리 정밀포병 시스템
시가총액(€M)	84,262



기준일: 25.07.11.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르네상스,
유럽 항공전력의 설계자

- AW 헬리콥터 시리즈와 고등훈련기 M-346으로 항공·방산 플랫폼 시장을 선도
- 나토 및 중동국가에 항공전자·센서·무장체계 대규모 공급
- 헬기, 항공기, 전자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방산 수출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

티커	LDO IM Equity
거래소	Brsaltaliana
주요 제품	다목적 군용헬리콥터 첨단 항공전자 장비
시가총액(€M)	27,340



기준일: 25.07.11.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THALES



보이지 않는 전장의 눈과 귀, 레이더 마에스트로

- 전장 센서, 레이더, 사이버보안 등 첨단 전자전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방산 기업
- 유럽 및 NATO 주요국에 조기경보레이더, 항공전자, 위성통신 체계 공급
- 우주·사이버·AI 기반의 방위 기술 강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 기업으로 부상

티커	HO FP Equity
거래소	EN Paris
주요 제품	전술 지휘통제 통신체계위성 정찰 및 감시 시스템
시가총액(€M)	51,691



기준일: 25.07.11.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AE SYSTEMS



전투기·자주포·해군함정까지, 전투 플랫폼의 거인

- 유로파이터 타이푼, F-35 항공전자, Type 26 군함 등 전투 플랫폼 전 분야 공급
- 영국·미국·사우디 중심으로 육·해·공 무기시스템 대형 수출계약 지속
- 미·영 동맹의 핵심 방산 허브이자 NATO 전략 무기 인프라의 주축 기업

티커	BA/ LN Equity
거래소	London
주요 제품	최신에 전투기 플랫폼 해상 전투체계 통합 솔루션
시가총액(€M)	66,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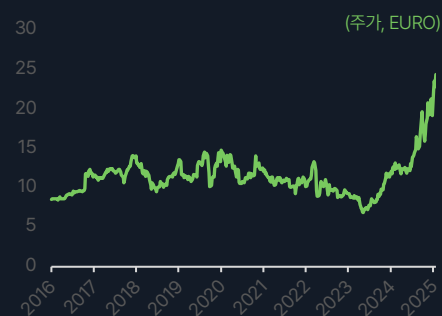
기준일: 25.07.11.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우주전쟁 시대, 유럽 우주력의 핵심 Avio SpA



- Vega C-Ariane 6 고체 부스터를 설계·제작하는 EU 최대 '솔리드 로켓 모터' 기업
- 2025 P160C 신형 모터 시험 성공으로 초소형 위성 발사 시장 선점 준비
- ESA·이탈리아 정부 수주 확대로 민·군 우주 수요를 동시 흡수, 우주전쟁 시대의 선두주자

티커	AVIO IM Equity
거래소	Brsaltaliana
주요 제품	고성능 로켓 추진 시스템 우주 발사체용 핵심 엔진
시가총액(€M)	662



흑한을 건디는 스마트 전장의 주역 MilDef Group AB



- 흑한·진흙·충격을 건디는 전장용 서버·태블릿 등 러기드IT 전문기업
- NATO 연동 보안 SW + 하드웨어 통합, 디지털전장 전환의 핵심 인프라
-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원격사격·드론통제 키트 공급으로 실전 검증, 드론전쟁 시대의 수혜주

티커	MILDEF SS Equity
거래소	Stockholm
주요 제품	군용 특수정보처리 장비 전술차량 내 통합 전자장비
시가총액(€M)	727



'드론·광대역 전장' 시대, 소리를 지휘하는 전술 네트워크 Invisio AB



- 전술 헤드셋·스마트 PTT 솔루션 기반 '네트워크전'을 가능케 하는 택티컬 기어 전문 기업
- 특허 빠른도·소음캔슬 기술로 총성·폭음 속에서도 선명한 음성·상황 인지
- 미·나토 특수부대 표준 채택 이후 55개국 이상 납품, 고마진 니치 방산 시장의 리더

티커	IVSO SS Equity
거래소	Stockholm
주요 제품	전술용 고성능 통신 헤드셋 군용 청각보호 및 소음억제 시스템
시가총액(€M)	1,635



AI 기반 전장 데이터 융합의 선두주자, Hensoldt AG



- 독일·프랑스 양국이 '센서 주관'을 위해 키우는 유럽 최고급 다중도메인 레이더 & EW 솔루션 기업
- AESA 레이더·적외선·AI융합 경보장비로 "보이지 않는 위협을 먼저 보는 눈" 제공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문 폭증, 무인기·유도탄 탐지 신제품으로 방어예산 레버리지 성장 가속

티커	HAG GR Equity
거래소	Xetra
주요 제품	다기능 감시·추적 레이더 열영상 기반 표적식별 센서
시가총액(€M)	11,746



HANARO

유럽방산 ETF

유럽의 재무장 (ReArm Europe)

방위산업 지출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방산기업에 투자

- 유럽지역의 안보위기 고조에 따른 유럽 방위전략의 “시대 전환 Zeitenwende(자이텐벤데)”
- 유럽의 재무장 및 방위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성
- 유럽 방위산업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AIRBUS	10.7	12	DASSAULT AVIATION	2.5
2	ROLLS ROYCE HLDG	10.4	13	RENK	2.5
3	SAFRAN	10.3	14	QINETIQ GRP	1.2
4	RHEINMETALL	10.0	15	CHEMRING GRP	0.8
5	THALES	9.6	16	INVISIO	0.6
6	BAE SYSTEMS	9.4	17	EXAIL TECHNOLOGIES	0.4
7	MTU AERO ENGINES	9.4	18	SENIOR	0.4
8	LEONARDO	8.7	19	AVON TECHNOLOGIES	0.3
9	SAAB B	6.6	20	MILDEF GROUP	0.3
10	BABCOCK INTERNATIONAL	2.9	21	AVIO	0.2
11	HENSOLDT	2.8	22	LUBAWA	0.1

기준일: 25.07.11.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 상품 정보

상장 종목명	HANARO 유럽방산 (종목코드 : 0082F0)
상장일	2025년 07월 29일
비교지수	STOXX Europe Total Market Defense Capped Index
총보수	연0.35% {집합투자 0.30% AP/LP:0.01% 신탁:0.02%, 일반사무 : 0.02%}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위험등급	2등급

기초지수

STOXX Europe Total Market Defense Capped Index

지수 특성	지수 소개	유럽시장에 상장된 방위산업 대표기업을 선별한 지수
	종목 수	22종목 (25.07.11 기준)
	리밸 런싱	종목 교체 및 비중 조정 : 3,6,9,12월

- 해당 투자 위험은 일부만 안내된 것으로, 상품별 고유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 투자대상·보수·수수료·환매방법 등을 (간이)투자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의 수익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SNS에서 ETF추천 영상, 추천 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당사 승인 없이 복제·유통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